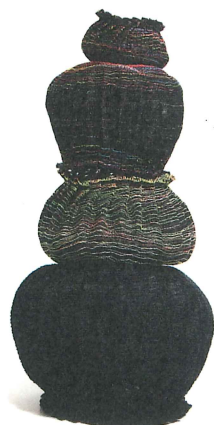




Black Bubble Bag, 2017



Veiled Basket Series, 2018

Nelly Song

- 2012 MA Mixed Media Textiles, Royal College of Art (London)
- 2008 BA Textiles Design, Chelsea College of Art (London)
- 2019 Craft star product development project exhibition (KCDF, Seoul)
- 2018 Craft trend fair_Selected artist exhibition (Coex, Seoul)
- 2018 The shape of nature exhibition (Hightide Store, Japan)
- 2018 7th International Recycling Art Exhibition (City hall, Busan)
- 2018 Art space Sindang Residency exhibition (S-Factory, Seoul)
- 2018 Osaka Piazza Exhibition (LADS gallery, Japan)
- 2018 Takebayashi Exhibition (Tanan Art Museum, Japan)

ネリ・ソン

- 2012 ロイヤル・カレッジ・オブ・アーツ メディア・ミックス・テキスタイル
修士課程 卒業 (ロンドン)
- 2008 チェルシー・カレッジ・オブ・アーツ テキスタイルデザイン専攻
卒業 (ロンドン)
- 2019 工芸スター商品開発プロジェクト (KCDF・ソウル)
- 2018 工芸トレンドフェア創作工房館 (COEX・ソウル)
- 2018 自然の形状 (ハイトイド ストア・福岡)
- 2018 国際リサイクリングアート展 (釜山市役所・釜山)
- 2018 新堂創作アーケードアーティスト・イン・レジデンス展
(S-ファクトリー・ソウル)
- 2018 大阪ピアツツア展 (LADSギャラリー・大阪)
- 2018 竹林展 (丹南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特設美術館・福井)

丸沼芸術の森は1985年、須崎勝茂氏(株式会社丸沼倉庫 代表取締役)により設立され、40名以上のアーティストを輩出してきました。30年以上の支援活動の結果、村上隆氏を始め、多くの作家が現在、国内外で活躍しています。丸沼芸術の森は制作の場に留まらず、アートと社会を結ぶ架け橋となっています。今後は、国際文化交流を通じ、よりグローバルな活躍を各作家が目指せるようにレジデンスや展覧会の企画などを積極的に行い、活動の幅をさらに広げていきます。

Marunuma Art Park was established by Mr. Katsushige Susaki in 1985, and we hosted over 40 artists since then. Many artists, including Takashi Murakami, are active both at home and abroad as a result of our continued support to artists for over 30 years. Marunuma Art Park is not only a space for the conception of art but also acts as a bridge connecting art to society. We aim to further expand by broadening the range of our activities and proactively executing residency programs and exhibition plans. We hope that our artists can become more involved in international exchanges and globally more active.

ネリ・ソン 展 / 触 感

主催：丸沼芸術の森・韓国工芸デザイン文化振興院
後援：駐日韓国文化院・Azabujuban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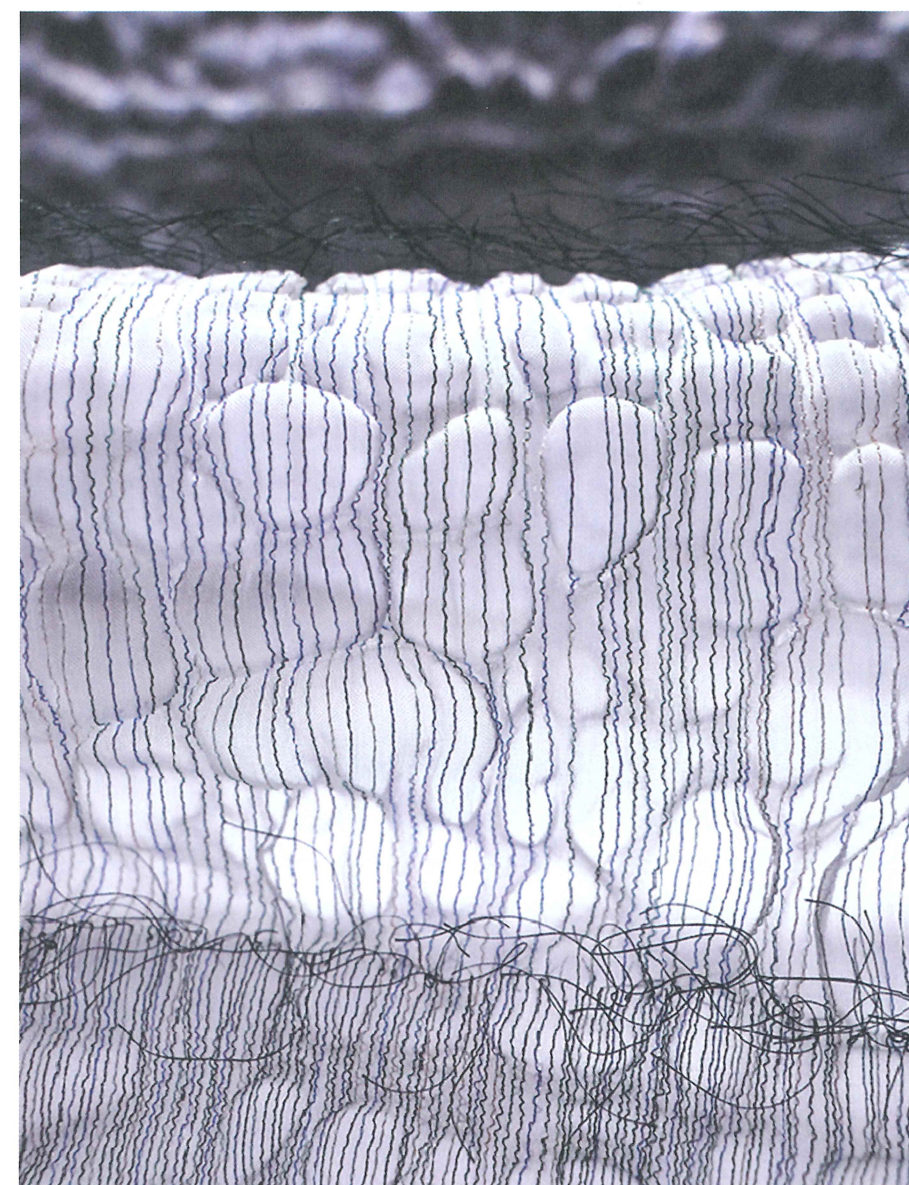
丸沼芸術の森 Marunuma Art Park

〒351-0001 埼玉県朝霞市上内間木493-1
TEL: 048-456-2533
FAX: 048-456-0003
<http://marunuma-artpark.co.jp>
<http://marunuma-artpark.eyes.es>

ネリ・ソン 個展 / Nelly Song Solo Exhibition

触 感

Sense of Touch



Marunuma Art Park
2019 artists-in-residence program No.1

2019年5月9日(木)・10日(金)

「見る・触る・感じる」紡がれてゆく世界

ネリ・ソンがファッションデザイナーの道を目指し、渡英したのは16歳であった。渡英先ではグラフィック、セラミック、版画、テキスタイルを専攻し、徐々にファインアートへと興味を持つようになる。その後、チェルシー・カレッジ・オブ・アーツ(Chelsea College of Arts)においてテキスタイルを専門に学ぶ中でそのテクニックに惹かれる。さらに表現の可能性を求めてロイヤル・カレッジ・オブ・アーツ(Royal College of Arts)へ進学し、プリントに刺繍をほどこした作品を制作するようになる。そのような仕事が卒業後も評価され、ホテルのインテリアや、企業との布の開発事業へと結びつきデザイナーとして歩み始めた。

ロンドンから韓国へ帰国後、あるショッキングな出来事に遭遇する。2017年にサムスン美術館リウム(LEEUM MUSEUM,ソウル)で行われたエルネスト・ネト(Ernesuto-Neto,b.1964,ブラジル)の展示である。それは鍾乳洞のように巨大で柔らかい生命体を髣髴させる空間のなかを歩いたり、触ったりできる新たなテキスタイルとの出会いであった。この体験により本来、布が持つ直接性を強く意識することになる。デザインが優先されがちでプロダクト的になっていた素材との付き合い方に「見る・触る・感じる」という新たなテーマを見つける事ができた。

同時期にプロムナードという韓国のデザイン学会誌に寄稿されたネリの作品には布の透過性や軽さ、立体感などを表現の中心としたテクスチャーが意識されている。泡のようであり、河原の小石の連なりや俯瞰された地形にも似た凹凸は触覚的な繰り返しによってどこまでも繋がってゆく。また、感覚的に刺し込まれた刺繍糸からは菌糸のような生命の意志を感じ取ることができる。布という断片でありながら見えない力に導かれ拡がってゆくその形はまるで垂直につながってゆく時間のようでもある。

ネリが日本に惹かれる理由は2つあるそうだ。一つは伝統(特にモノづくりにおいて)へのリスペクト。もう一つはイギリスでも韓国でもない環境で何ができるのかという興味である。

エルネスト・ネトの言葉に次のようなものがある。「ルネッサンスの時代に西洋文明はアイデンティティというものを考え出したわけです。アイデンティティは個人を明確にするものであると同時に、個人をある枠に規定してしまうものです。たとえば、私が白い作品をつくと決めてしまえば、私は白の奴隷になってしまうわけです。人間はつねに変わるものであることを知る必要があります。それが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はないでしょうか。」

私が接したネリの人間的なしなやかさはそういった生きる姿勢のように感じる。

丸沼芸術の森アーティスト, 東京造形大学 教授
大橋博

[보다·만지다·느끼다] 엮어가는 세계

송승림이 패션디자이너의 꿈을 안고 영국으로 건너간 것은 16살 때의 일이었다. 영국에서 그래픽, 세라믹, 판화, 텍스타일 등을 전공하면서 점차 미술전반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Chelsea College of Arts에 진학하여 텍스타일을 전공하던 중에 테크닉에 심취하게 되었고, 자신만의 표현의 가능성에대한 연구를 위해 Royal College of Arts석사과정에 진학하여 프린트에 자수를 입히는 등의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 그러한 작업들은 졸업 후에도 좋은 평가를 받아 호텔의 인테리어와 기업과의 원단 개발사업과 연계하며 영국에서 디자이너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런던에서 한국으로 귀국 후, 그녀는 어떠한 충격과 조우하게 된다.

그것은 2017년에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개최 된 에르네스토 네토 (Ernesuto-Neto, b.1964, 브라질) 의 전시를 보게 되었을 때의 일 이었다. 그곳에서 종유석 동굴과 같은 거대하고 부드러운 생명체를 방불케 하는 공간을 걸거나, 만질 수 있는 새로운 텍스타일 표현과 만나게 되었다. 이때의 체험에 의해 원단 자체가 가진 직접적 표현에 대해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디자인을 최우선으로 한 프로덕트적인 소재에 대한 방향에서 [보다/만지다/느끼다] 라고 하는 새로운 테마로 변화하게 되었다.

같은 시기에 ‘프롬나드’ 라고 하는 한국의 디자인 학회지 에 기고된 송승림의 작품은 투명성과 가벼움, 입체감등을 표현의 중심으로 하는 텍스처가 의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녀의 주된 텍스처는 마치 물방울, 혹은 강변에 줄지은 조약돌, 지형의 조감도처럼 보이는 울룩볼룩한 촉각적 반복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보인다. 또한 텍스처 위에 감각적으로 새겨진 자수실 들은 군사와도 같은 생명의 의지를 느끼게 해 준다. 천이라고 하는 단편적인 소재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확장되어 가는 그녀만의 형태들은 마치 수직적으로 연결되어가는 시간과도 같이 느껴진다.

송승림이 일본 레지던스에 참가한 이유는 크게 2가지라고 한다. 첫째는 전통(특히 장인들에 대해서)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둘째는 영국도 한국도 아닌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기대감 이었다고 한다.

에르네스토 네토 의 어록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르네상스 시대에 서양문화는 아이덴티티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 이었다. 아이덴티티는 개인을 명확히 하는 것과 동시에 개인을 어떤 테두리에 규정해 버리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새하얀 작품을 만들겠다고 결정해 버리면 나는 하얀색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인간은 늘 변화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이 아닐까?”

필자가 만나본 송승림의 인간적인 여유와 나긋함에서 에르네스토 네토 의 어록과 같은 삶의 자세를 느낄 수 있었다.

마루누마 예술의 숲 아티스트, 동경 조형대학 교수
오하시 히로시